

우리 농장의 올인, 아웃 운영방법 및 효과

삼 본 농 장



박 용 범
(삼본농장 대표)

주간 6복단위로 환경조건을 다르게 조절하며 ALL IN-ALL OUT 시스템을 갖추어 지금까지 운영한 방법 및 장·단점을 서술하고자 한다.

본 삼본농장은 부지 3,000여평에서 돼지 1,3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돈사는 분만자동종부사, 임신사 그리고 비육사 2동으로 이뤄져 있다.

ALL IN-ALL OUT을 통한 질병차단

본 농장에서는 분만 1~2주전에 모돈에 구충 및 세척, 소독(분만 및 자돈사는 돈방별로 분리되어서 올인, 아웃을 통해 질병차단 및 별도관리가 가능하지만 종부 및 임신사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므로 반드시 방역이 필요함)이 끝난 후

분만사로 이동되어 유도분만에 의하여 동시 분만하며, 분만 후 모돈상태 및 산차, 생시체중, 산자수에 따라 양자를 보내며 주로 초산돈에는 유선발달을 위해 체중이 큰 것을 물리며, 작은 것들은 능력이 좋은 모돈에게 보낸다.

이유는 보통은 25~30일 정도에 실시하나 산자수가 많거나 체중이 적은 것이 있으면 능력이 좋은 모돈에 양자를 보내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.

분만 후 자돈은 저혈당증 방지 및 입붙임 양호, 이유체중 및 이유두수 증가를 위해 포도당 복강주사를 분만 후 3일간 실시한다.

모돈은 이유를 시킴과 동시에 종부사로 가서 3~7일 내에 인공수정(90% 정도)이 들어간 후

임신 초기사로 다시 옮겨져 재발정 확인 및 임신진단을 거쳐 임신 후기사로 최종 이동된다.

모돈은 본 농장에서 자가 생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모돈구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질병의 도입을 차단할 수 있다.

또한 자돈들도 이유(이유 체중은 28일령에 8kg 이상)와 동시에 이유자돈의 적정 온도로 유지된 이유자돈사로 이동되어 30kg 전후에서 비육사로 이동된다.

온도관리가 돈방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유 후 곧바로 자돈들을 이유자돈사로 옮길 수 있어 돈방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.

주간 6복단위로 이루어진 돈방별 관리

비육사로 이동과 동시에 이유자돈사는 청소 및 소독이 이루어진다. 현재 주간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간 6복을 맞추기 위해서는 재발 및 도태 등을 예상하여 적정두수를 종부시켜야 한다.

왜냐하면 6복만 종부시키면 재발이나 도태 등이 나올 수 있어 돈방이용률이 낮아지며 성적에 따른 이유시에 도태 등이 용이하지 않다.

또한 재발 및 후보돈 편입으로 종부복수가 많은 경우는 분만사의 이유두수조정 및 도태에 의해 주간 6복단위에 맞게 조정한다.

이러한 것들은 정확한 기록관리에 의해 분만, 이유, 종부일자 등 그리고 각 모돈의 성적분석 등이 있어 계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.

주간 6복단위로 이루어져 돈방별로 온도, 환기



관리가 되기 때문에 병원균들의 차단이 가능하므로 이로 인해 양호한 성적을 얻을 수 있다.

이를 위해서는 돈방내 온도에 따른 환기시스템이 필요하며 또한 돼지의 필요환기량에 맞추어 공기유입, 배출면적 및 환기팬의 용량 등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설비됨과 동시에 원활한 공기순환을 위해 돈사상황에 맞는 환기시스템이 필요하다.

부적절한 공기순환 및 잘못된 환기설비가 되면 개스의 배출이 잘되지 않아 더 많은 환기가 필요하여 환기로 인한 열손실 및 온도관리에 문제가 발생된다.

최신식 시설이 아니더라도 올인, 올아웃에 맞는 시설과 주간관리, 기록관리, 철저한 방역, 각 농장의 노하우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올인 올아웃 및 돈방단위의 환경조절이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.